

이해, 그 이전의 시간을 마주하다 김리아갤러리, 김아라 개인전 《단 하루도 이해하려고만 들면 긴 시간이다》 개최

- 공간과 빛, 여백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업 집중 조명
- '비움'과 '존재'를 탐구하는 신작 20여 점 공개
- 2025 KIAF Highlight Semi-Finalist 선정 이후 주목받는 첫 개인전



‘단 하루도 이해하려고만 들면 긴 시간이다’ 전시 알림 포스터

김리아갤러리는 오는 2026년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김아라 개인전 《단 하루도 이해하려고만 들면 긴 시간이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김아라가 김리아갤러리에서 선보이는 첫 개인전으로, 그동안 축적해온 작업 세계를 본격적으로 조망하는 자리다. 한국 전통 건축의 구조적 미감에서 출발해 평면과 입체, 이미지와 구조의 경계를 탐구해 온 작가는, 회화와 부조가 어우러진 신작들을 통해 자신의 조형 실험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김아라는 이번 전시에서 먹과 린넨을 주요 재료로 활용한다. 린넨을 먹으로 염색하고 세척과 채색을 거치며 화면의 밀도와 깊이를 조절하고, 빛의 투과와 구조적 프레임이 드러나는 <Window> 시리즈를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시킨다. 얇은 직조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화면의 농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며 보이지 않던 구조를 드러내고, 분채와 안료, 아크릴을 겹겹이 쌓아 올리는 과정은 시간의 축적과 감각의 층위를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작가는 형식을 단순화할수록 오히려 감각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재료와 과정 자체를 하나의 감각적 경험의 공간으로 확장하며, 이러한 태도는 반복과 절제, 침묵의 밀도를 축적해온 아그네스 마틴(Agnes Martin)의 정신과 태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확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전시 제목은 프랑수아즈 사강의 『리틀 블랙 드레스』에 수록된 한 편의 절제된 문장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는 특정한 서사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 작가가 자신의 작업 태도와 감각을 언어적으로 환기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출발점에 가깝다. ‘공간 인식’에서 출발한 김아라의 작업 방식은 이번 전시에서 한층 더 깊어진다. 전시장 내 층별 채광 차이와 자연광의 흐름을 고려해 작품을 구성하며, 빛의 양에 따라 변화하는 어두움과 깊이를 화면에 반영했다.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밝기와 음영은 작품의 일부로 작동하며, 관람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인상을 만들어낸다. 작가는 작품을 단순히 전시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작품이 하나의 구조로 작동하도록 설계하며 회화와 전시 환경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다.

전시장에 놓인 작업들은 명확한 서사를 제시하기보다, 관람객이 화면 앞에 머무르며 각자의 감각과 기억을 되살리도록 이끈다. 구조와 여백, 반복과 침묵이 공존하는 화면은 빠르게 소비되는 이미지 환경과 거리를 두고,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을 제안한다. 《단 하루도 이해하려고만 들면 긴 시간이다》는 작품이 지닌 물리적 깊이와 사유의 밀도를 다시금 환기시키며, 동시대 미술 안에서 김아라의 조형적 가능성을 드러내는 전시가 될 것이다.

주최: 김리아갤러리

위치: 김리아갤러리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75길 5 (청담동 100-31)

KIMREEAA GALLERY | Gangnam-gu Apgujeong-ro 75gil 5, Seoul, Korea

INSTAGRAM: www.instagram.com/kimreeaagallery

WEB: www.kimreeaa.com



김아라는 건축, 조각, 회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 교차점에서 조형 언어를 탐구한다. 특히 한국 전통 건축의 구조적 미감에 주목하며 이를 추상적으로 해석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작가는 전통 건축의 결구(結構) 방식에서 조형적 단서를 찾아, 캔버스를 하나의 이미지를 담는 지지체가 아닌 물리적이고 독립적인 조형 요소로 바라본다. 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평면과 입체, 회화의 안과 밖을 사유하며 전통과 현대의 경계 위에서 실험을 지속해왔다. 작업에서 문창살의 격자, 기둥과 보, 도리, 공포와 같은 구조적 요소는 비례와 질감, 규칙성과 반복을 통해 시각화된다. 일정한 규격과 구조의 분할은 그것이 어떻게 전체 공간 속에 수용되는지를 보여주며, 수직과 수평의 교차가 만들어내는 긴장 속에서 새로운 조형적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단청의 문양이나 건축의 세부 요소를 취사선택해 대칭과 반복을 화면에 구성함으로써 구조와 문양, 공간 사이의 관계를 추상적으로 재해석한다.

Kim Ahra traverses the boundaries of architecture, sculpture, and painting, exploring a sculptural language at their intersection. She has consistently focused on the structural aesthetics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interpreting them through abstraction. Drawing formal cues from traditional joinery techniques (gyeolgu), she regards the canvas not as a mere support for images but as a physical and autonomous sculptural element. Through processes of dismantling and reconfiguration, sh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lane and volume, interior and exterior, sustaining an inquiry along the threshold between tradition and contemporaneity. Structural elements such as the lattice of traditional window frames, columns and beams, dori, and bracket systems are visualized through proportion, texture, regularity, and repetition. The segmentation of standardized units reveals how each component is received within an overall spatial order, while the intersection of vertical and horizontal axes generates new formal tensions. By selectively appropriating dancheong patterns and architectural details and arranging them through symmetry and repetition, she reinterprets the relationships among structure, ornament, and space in abstract terms.

최근 작업에서 먹은 중요한 조형적 요소로 자리한다. 먹은 단순한 색채가 아니라 스며들고 번지며 농담을 형성하는 물질로서, 구조와 화면의 관계를 새롭게 조직한다. 단단한 격자와 유동적인 먹의 흐름은 서로를 드러내거나 흐리며 긴장을 형성하고, 표면을 하나의 깊이를 지닌 공간으로 전환한다. 검은 색면은 닫힌 면이 아니라 내부를 품은 장으로 작동하며, 구조와 여백 사이의 관계를 더욱 밀도 있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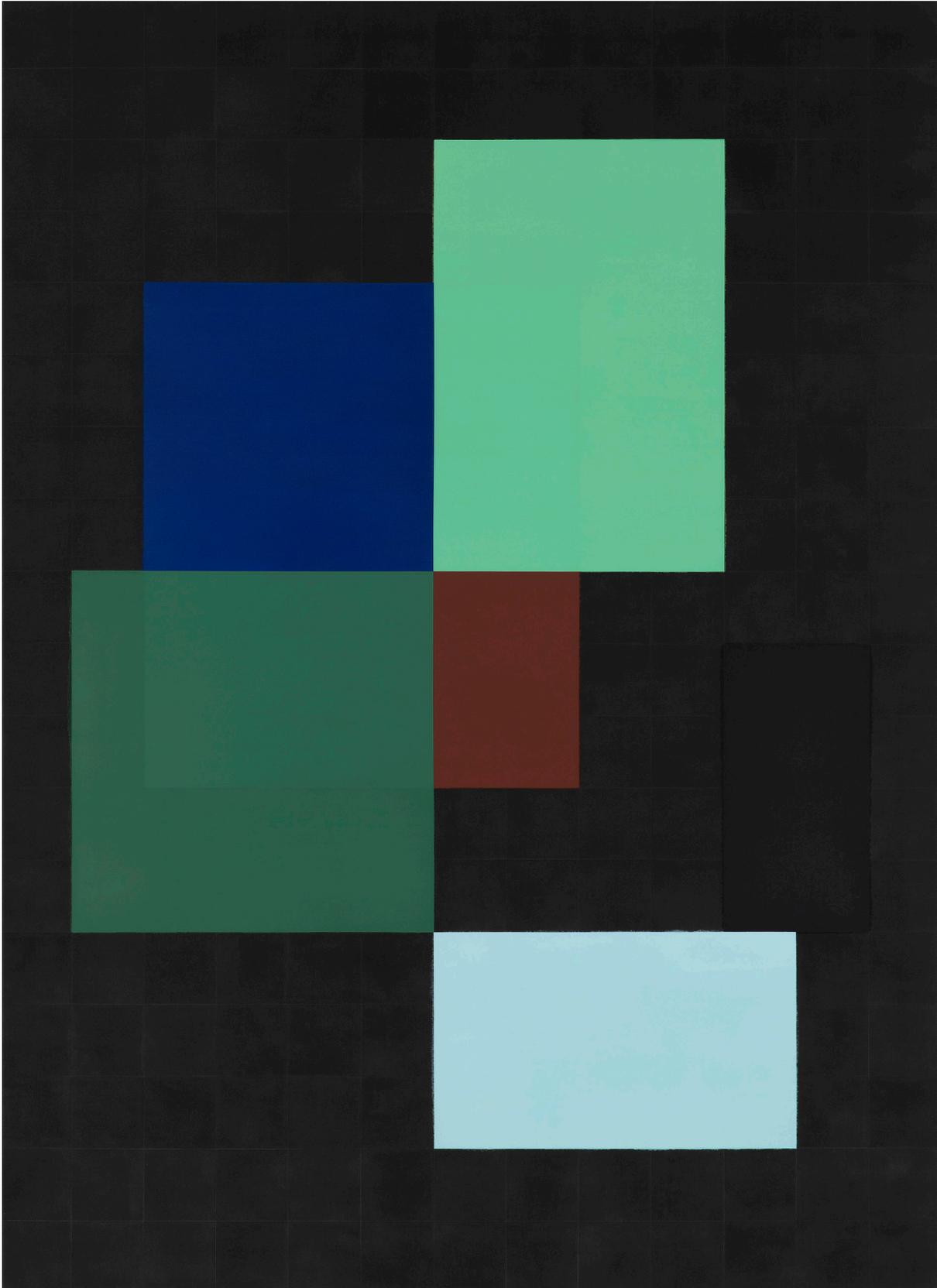
이러한 작업은 건축이 내부와 외부를 매개하듯, 조각적 화면 안에 비어 있음의 구조를 형성한다. 여백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주변 공간과 호흡하며 확장되는 또 하나의 영역이다. 관람자의 이동과 시선에 따라 구조와 먹의 농담은 미묘하게 변화하며, 화면은 고정된 형상이 아닌 경험적 공간으로 인식된다.

1989년생인 김아라는 경기대학교 환경조각학과에서 석사를 졸업했다. 다수의 미술관 전시에 참여했으며, 2025년 Kiaf Highlight Semi-Finalist로 선정되며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구조와 공간, 지지체의 관계를 더욱 실험적으로 확장하며 동시대 조형 언어를 모색하고 있다.

In her recent work, ink has emerged as a significant formal element. Rather than functioning merely as color, ink operates as a material that permeates and diffuses, producing tonal gradations that reorga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e and surface. The interplay between rigid grids and the fluid movement of ink reveals and obscures form simultaneously, creating a productive tension that transforms the surface into a space of perceptual depth. The black plane does not operate as a closed surface but as a spatial field containing interiority, intens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e and vo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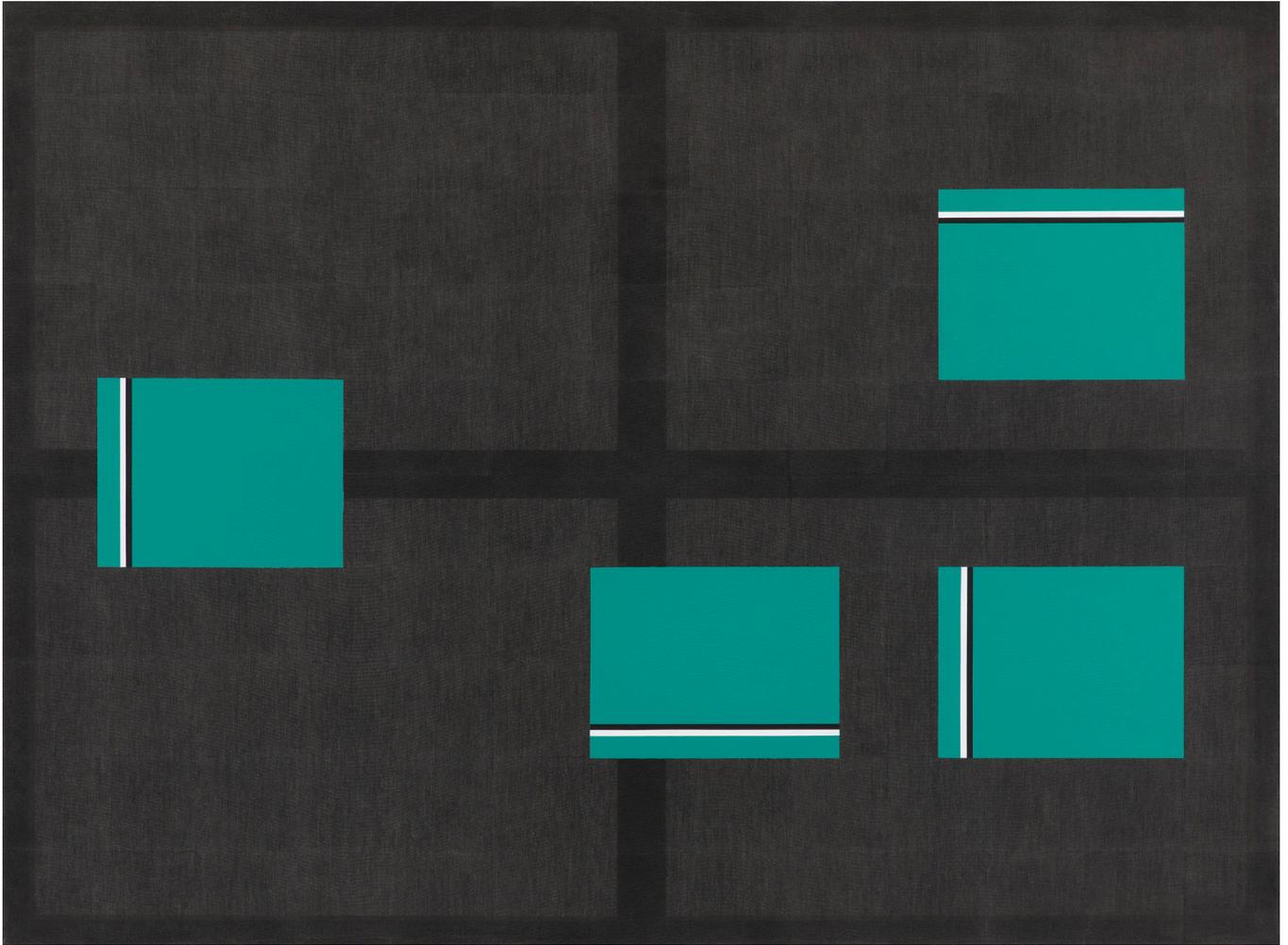
Much like architecture mediates between interior and exterior, her work constructs a structure of emptiness within a sculptural plane. The void is not simply an absence but an active field that breathes with its surrounding space. As viewers move and shift their perspective, the structure and tonalities of ink subtly transform, and the work is perceived not as a fixed form but as an experiential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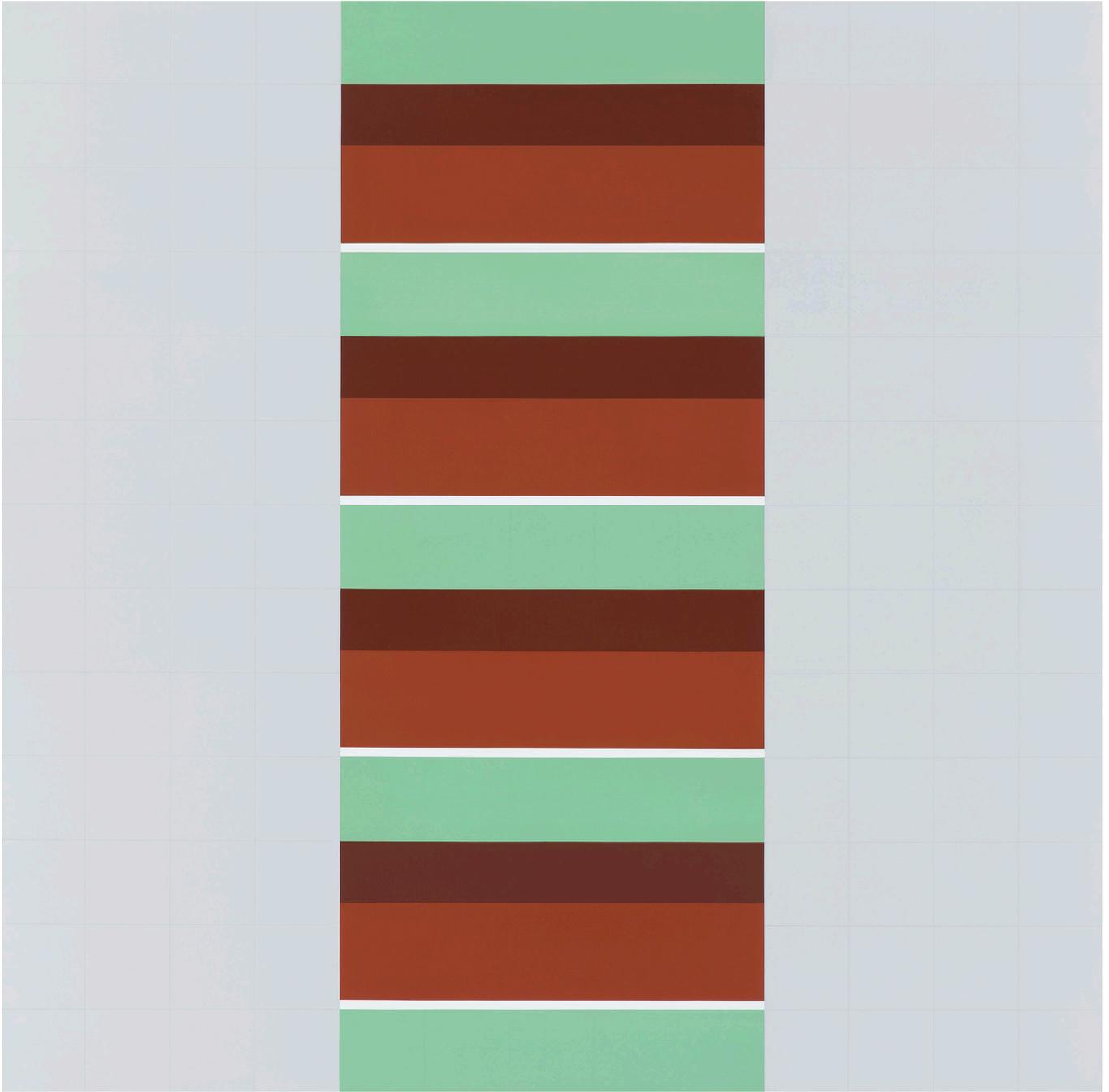
Born in 1989, Kim Ahra received her M.F.A. in Environmental Sculpture from Kyonggi University. She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museum exhibitions and was selected as a 2025 Kiaf Highlight Semi-Finalist, gaining notable recognition. In recent years, she has continued to expand her investigation of structure, space, and support, pursuing a contemporary sculptural language.



Kim Ahra
Untitled (2026)

ink, acrylic and pigment on linen
193.9 × 140cm







Kim Ahra
Square Pieces #5 (2026)

acrylic and pigment on wood frame for canvas
32.1×32.1×2.9cm

